

## 보도자료

2020년 7월 21일(화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전 파관리실 검사기획팀 팀장 이종수 (061) 350-1571  
배 포: 운영지원단 총무홍보팀 사원 최혜인 (061) 350-1325

# KCA, 차세대 해상무선통신망(LTE-M) 라우터 무선국검사 최초 시행

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'KCA')은 지난 16일 해양수산부가 한국형 e-Navigation 사업으로 추진하는 초고속 해상 무선통신망(이하 'LTE-M')의 라우터(이하 '단말기') 무선국검사를 최초 시행했다고 밝혔다.
- 한국형 e-Navigation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항만정보,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해 선박 안전운항 및 편리성을 돕기 위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 체계이다.
- LTE-M 단말기는 700MHz 대역에 LTE 기술을 적용하여 e-Navigation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선, 레저보트 등의 선박에 점진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. 대한민국 영해 및 연근해의 최대 100km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.
- 전파법에 따른 이번 검사는 주파수 편차, 점유주파수 대역폭, 대역 외 발사 등의 성능검사와 허가 시 지정된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전남 완도항에 있는 낚시 어선에서 시행하였다.
- 무선국 검사결과 기지국과 단말기 상호간 전파품질 상태는 물론 인접대역에 전파 혼·간섭 영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.

- KCA 정한근 원장은 “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해상무선통신망 구축과 한국형 e-Navigation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해양강국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- 또한 “앞으로도 LTE-M 단말기를 면밀히 검사하여 어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항해와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

[사진] KCA 무선국 검사관이 정밀 계측기를 활용하여 LTE-M 단말기의 성능품질을 검사하는 모습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 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천기 차장(☎ 061-350-157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